

선비들의 임란 倡義精神과 의병 활동*

우인수**

■ 차례 ■

- I. 머리말
- II. 창의를 동기와 선비 정신
- III. 선비들의 의병 활동과 그 의미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선비들의 임란 창의 격문이나 통문의 분석을 통해 창의 정신을 추출하고, 그를 선비정신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선비정신에 입각한 그들의 의병 활동상을 살피면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난중잡록』에 실린 총 41편에 달하는 격문과 통문이었다. 그 중 임진년인 1592년 한 해 동안에 작성된 것이 34편으로 전체의 약 83%에 달할 정도로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의병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 때가 역시 임란 초기였음을 확인케 해준다. 격문과 통문에 나타난 핵심어의 분석을 통해 창의를 동기를 짐작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창의에 영향을 미친 선비들의 정신을 추출할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2013(2014)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추출된 선비 정신은 大義, 忠誠, 爲國, 責任, 復讐 등 다섯 가지였다. 선비들의 창의를 평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선비정신의 발로였다. 선비들의 의병 활동은 선비정신의 현실 세계에서의 구현이자 적용이었던 것이다. 이는 위기를 맞은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성을 부여한 행위로서 지도자의 마땅한 역할이었다. 창의를 명분이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많은 백성들을 의병 휘하에 모우고 거느리기 위해서는 높은 명망이 요구되었는데, 이는 평소 학문을 닦으면서 인격 도야에도 힘쓴 선비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임란 초기 선비들의 의병 활동은 꺼져가던 국운에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행위였다. 의병의 중요성을 인식한 조선 정부도 의병 창의를 독려하여 총력전을 펼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지탱시킬 수 있는 힘인 희망을 선비들이 행동으로 이끌어 낸 것이다. 이들의 활동은 백성들의 인심이 더 이상 이반되지 않고 하나로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일본군에게 일방적으로 우세하게 전개되던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의병의 활약으로 체제 정비를 위한 시간을 번 조선은 차츰 육지의 관군을 수습하여 재정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비록 의병의 긍정적 활동이 단기간에 그쳤고 전투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성취한 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명맥이 의병 덕분에 유지될 수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주제어

선비, 선비정신, 의병, 임란의병, 격문, 倡義精神

I. 머리말

임진왜란은 일본이 계획적으로 도발하여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었다. 당시 조선과 일본뿐 아니라 명나라까지 가세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삼국이 참여한 국제전쟁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 영향도 만만찮아 전쟁이 끝난

후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붕괴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으며, 명나라도 전쟁의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여진족에게 나라를 넘겨주게 되었다. 전국이 전장으로 화한 조선은 비록 왕조는 유지하였으나 국토가 황폐화되고,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

당시 지배층으로서 조선을 이끌어가던 존재는 선비들이었다. 선비는 儒家의 가르침을 배우고 신봉하던 儒士를 가리킨다. 그들은 조선의 기득권층으로서 크고 작은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이었다. 거기에다가 그 선비들이 중화에 전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주변의 '이적'에 대해 지나치게 下視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였고, 이는 대외 관계의 경화 또는 소홀로 연결되어 결국 화를 자초한 면도 없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외부로부터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선비의 나라에서 선비들이 일어나 막는 것은 당연한 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여 의병을 일으켜 투쟁 의지를 북돋우고 크고 작은 공을 세운 것은 국난 극복의 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동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중화에 전념했던 덕분에 임란 때 중국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전제와 인식 속에서 선비들의 임란 의병 창의를 살피고자 하였다. 선비들의 임란 의병 활동에 나타난 선비정신을 추출하고, 선비정신에 입각한 그들의 활동상을 살피려는 것이다. 먼저 선비들의 창 의 동기와 창 의 정신을 격문에서 추출하여 이를 선비정신과 견주어 연결하였다. 의병을 초역사적 존재로 이해하지 않고, 선비정신의 역사화를 통해야만 비로소 현실에 발을 디딘 객관적 평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상은 현실적 상황이 뒷받침되었을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어 당시의 전쟁 상황을 충분히 감안한 상태에서 선비

들의 의병 활동을 기술하되, 정치적인 목적이나 필요성에 의해 윤색되거나 과장된 부분은 걷어내면서 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의병에 대한 과도한 포장이나 의미 부여는 경계하면서 관군과의 사이에서 균형감을 잃지 않고자 하였다. 선비나 선비정신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로이다. 시대적 상황과 현실을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한 위에서 객관적 이해와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임란 의병에 대해서는 수많은 선행연구가 산적해있는 형편이다. 의병에 대한 연구를 회고하고 전망한 논문만도 수편에 이를 정도이다.¹⁾ 따라서 의병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 현황 분석은 이들 논문에 맡겨도 충분하다. 여기서는 본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기존의 의병 연구에서도 격문은 동기를 추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나 대부분 부분적 활용에 그쳤고, 본격적으로 그것을 분석의 주된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문학 쪽에서 이루어진 임란 격문에 대한 연구도 격문의 문체 구분이나 일반적인 분류에 그친 한계가 있다.²⁾ 따라서 격문의 분석을 통해 선비의 창의 동기를 밝히려는 시도는 새로운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본고는 선비들의 의병 활동에 초점을 맞춘 점, 격문을 주로 활

1) 조원래, 「임진왜란사 연구의 추이와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2000. 박재광, 「임진왜란 연구의 현황과 과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계승범, 「임진의병의 연구 동향과 군사사적 의의」, 『임진의병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가치』, 선인, 2009. 노영구, 「임진왜란 의병에 대한 이해의 과정과 새로운 이해의 방향」, 『한일군사문화연구』13, 2012. 정해은, 「임진왜란 의병 연구의 성과와 전망」, 『임진의병사의 재조명』,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2012.

2) 김영숙, 「영남의병 관련 임란 격문의 실상과 의의」, 『동방한문학』18, 2000. 김정미, 「조선조 격문 연구 - 임란기의 격문을 중심으로 -」,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1. 박정민, 「임란기 격문 연구」,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10.

용하여 선비들의 창 의 동기를 추출 분류하고 이를 선비정신과 연결지어 파악하고자 한 점, 비록 선비층에 한정짓기는 하였지만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 활동 상황을 시야에 넣고 그 의미를 조망한 점 등이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하겠다. 다만 의병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연구가 거의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십분 기존의 성과를 수렴하여 활용하면서 선비들의 의병 활동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II. 창 의의 동기와 선비 정신

1592년 4월 조선은 바다를 건너온 일본군 15만여 명의 침략을 받았다. 부산성과 동래성이 차례로 함락되었고, 부산포침사 정발과 동래부사 송상현은 군민과 함께 성을 지키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200여년간의 태평에 익숙해 있던 조선군은, 100여 년에 걸친 전란 속에서 단련된 일본군의 조직적인 전투법과 철포대의 위력에 겁을 먹었다. 초기 육지의 관군은 준비 소홀과 체계적인 군사지휘의 결여로 패주를 거듭하였다.

이일의 상주 전투와 신입의 충주 전투 패배로 인해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한지 20여일 만에 한성이 적의 수중에 떨어졌다. 선조는 개경, 평양을 거쳐 압록강변의 의주로까지 피난가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곳에서 명에게 구원병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적의 침략을 받은 지역의 백성들은 터전을 잃고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었고, 미처 떠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도 갖은 약탈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것이다.

육지의 관군이 패배를 거듭하는 동안 일본군의 후방을 교란함으로써 격퇴의 전기를 마련한 것은 수군과 함께 의병의 존재였다. 바다의 수군은 일본의 인적·물적 수송 작전을 차단시킴으로써 일본군에게 직·간접적인 큰 타격을 주었으며, 특히 이순신과 원균이 이끈 조선 수군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본군 격퇴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임란 초기에 국토가 유린당하고 백성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였을 때 의병이 각 지역에서 분연히 일어났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은 조선의 잠재된 저력이 표출된 것으로서 전쟁 초반의 패배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큰 활력 소로 작용하였다. 일부 빠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의병이 봉기하였으며, 대부분은 조정의 권유에 호응하여 의병을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의병장의 대부분은 선비였다. 선비는 조선의 지배층이자 지식인으로서의 양식을 지닌 존재였다. 적의 세력이 아무리 불길같이 심하게 일어나더라도 지켜야 될 의리와 자존심을 내팽개치지 않았다. 다급한 사정으로 인해 피해서 도망은 갔을지언정 외적에 빌붙은 사람은 없었다.

승지 李忠元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즉위하신 후 25년 동안 항상 정치에 골몰하시고 荒淫한 적이 없었으니 적세가 제아무리 치성해도 士大夫 중 한 사람도 적에게 항복한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天意와 人心을 대개 알 수 있는 것입니다.”³⁾

선비로서 외부 침략자에 대해 협조하는 자는 극히 드물었던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오히려 선비들은 단순히 외적에 협조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이 허락할 경우 외적 격퇴를 위해 분연

3) 『선조실록』26, 25년 5월 3일 임술.

히 떨어져 일어났다.

의병으로는 문반 전직관료가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여기에 생원·진사나 유생까지 합치면 선비로 간주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최영희의 분석에 의하면 의병장급 인물 102명 가운데 전·현직 관료, 생원·진사, 유생 등 선비에 해당하는 인물이 81명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다.⁴⁾ 호남지역 의병장을 분석한 조원래의 연구에 따르면이라도 역시 대부분이 문과 출신이거나 전직 관료였음을 알 수 있다.⁵⁾

선비들이 이렇게 국난을 맞이하여 의병을 규합하면서 나설 수 있었던 데는 조정의 권유나 군주로부터의 인정도 분명 작용하였다. 또한 戰功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며, 관군보다는 훨씬 융통성 있는 선택적 대응이 가능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점이 창의를 더욱 추동하거나 적어도 의병을 유지 지속시킨 현실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고 사족들의 향촌 지배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창의를 필요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현실적 문제들이 여러 고려 대상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겠지만 역시 창의를 일차적으로 정신적인 요소가 작용하지 않으면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선비정신에 착목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선비들의 창의 동기와 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우선 그들 스스로가 쓴 檄文이나 通文을 통해 살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창의

4) 최영희, 『임진왜란중의 사회동태』, 한국연구원, 1975, 67쪽, 의병장 성분표 참조. 단 조호익을 무반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는 퇴계 이황의 제자로서 科擧를 멀리하고 '爲己之學'에 힘쓴 인물이기 때문에 유생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5) 조원래, 『임진왜란과 호남지방의 의병항쟁』, 아세아문화사, 2001, 10~11쪽.

당시의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도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임란 당시의 격문·통문을 가장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는 것은 조경남의 『난중잡록』이다.⁶⁾ 조경남은 전라도 남원의 선비로 20대에 임란을 직접 경험하였을 뿐 아니라 정유재란시에는 의병으로 활약한 바도 있는 인물이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자신이 평소대로 써오던 일록에다가 수집한 다양한 자료에 입각하여 국가의 중요한 사실을 날짜순으로 엮은 것이다. 자신의 거주지인 전라도 지역에 전혀 국한되지 않고 전국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그 중에서도 지금은 전하지 않는 『慶尙巡營錄』을 많이 인용하여 경상도의 상황을 전하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난중잡록』에 수록되지 못한 임란 당시의 격문류도 있으나⁷⁾ 논의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단 이 책에 수록된 것을 위주로 하였다. 그리고 김성일의 경우는 경상도초유사의 직함을 가졌기 때문에 의병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임무 자체가 창의를 유도하고 또 의병들의 원활한 활동을 주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6) 『대동야승』에 수록된 『난중잡록』과 후손가에 보존된 『난중잡록』은 수록 범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대동야승』을 국역을 할 당시 위 둘을 합치고 조정하여 완전한 편집을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역본을 활용하였다. 조경남, 『난중잡록』(『국역 대동야승』6·7, 민족문화추진회, 1972).

7) 박정민은 임란 격문을 다룬 논문에서 관군과 의병의 격문을 막론하고 난중잡록에 수록된 52편과 개인 문집에서 조사한 34편을 합쳐 도합 86편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 그 중에서 개인 문집의 경우 수집 범위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 대상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또한 격문 자료목록에서 첫 번째로 제시한 ‘通諭道內父老軍民等事’을 고경명이 지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는 선조가 내린 통유문이며, 10번 ‘通諸道文’의 작성자 ‘張下士’는 ‘帳下士’의 오키로서 인명이 아니라 전라도 의병대장 ‘막하의 선비’를 의미한다. 박정민, 앞의 「임란기 격문 연구」, 12~16쪽.

이에 본고에서 분석의 주된 대상으로 삼은 격문이나 통문은 총 41편으로 이를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임진왜란기 의병의 격문

연번	연월	작성자	격문·통문	핵심어(키워드)	전거 ⁸⁾
1	1592.5	金誠一	招諭一道士民文	大義 忠孝 褒賞	6-359
2	1592.5	趙宗道 李魯	募兵通文	忠義 貞節 義利	6-364
3	1592.6	高敬命	檄道內書	大義 君恩	6-391
4	1592.6	高敬命	檄諸道書	忠心 義理	6-396
5	1592.6	高敬命	檄濟州節制使楊大樹書	軍馬	6-399
6	1592.6	高從厚 柳彭老	通諸道文	湖南 軍糧	6-400
7	1592.6	高敬命	移關本道列邑	募軍 忠義	6-407
8	1592.6	郭再祐	檄巡察使金晬文	金晬 罪目	6-414
9	1592.6	郭再祐	通諭道內列邑文	金晬 處罰	6-418
10	1592.6	高敬命	檄全羅巡察使書	湖南 巡察使督勵	6-444
11	1592.6	高敬命	檄海南康津兩使君書	錦山 合勢	6-445
12	1592.6	金誠一	通諭玄風士民文	義烈 賞罰	6-451
13	1592.7	趙憲	起義討倭賊檄	國土回復 湖西	6-455
14	1592.7	金覺 李堧	檄文	募軍 募糧	6-465
15	1592.7	李叔樸	布告列邑士民文	忠孝	6-471
16	1592.7	任啓英	檄列邑諸友文	湖南 鄉土防禦	6-488
17	1592.7	宋濟民	募兵湖南義兵文	高敬命 湖南保全	6-490
18	1592.8	任啓英	移長興士子檄	선비 公論	6-511
19	1592.8	任啓英	移本郡檄	義理 公論	6-512

8) 전거의 숫자는 『난중잡록』이 수록된 『국역 대동야승』6·7(민족문화추진회, 1972)의 쪽수이다.

20	1592.8	任啓英	移本府檄	敵愾 軍需	6-512
21	1592.8	任啓英	移檄列邑	責任 募糧	6-513
22	1592.9	李魯	通江右募糧文	募糧	6-547
23	1592.10	洪隣祥	江原道召募大將通文	大義 京城收復	6-563
24	1592.10	鄭仁弘	通諭江右士友	全羅義兵 募糧	6-580
25	1592.10	任啓英	移本道諸義兵檄	爲國 應援	6-582
26	1592.11	洪季男	爲復讎事文	復讎	6-584
27	1592.11	高從厚	通文	復讎	6-585
28	1592.11	高從厚	列邑義兵廳諸公書	復讎	6-588
29	1592.11	鄭仁弘	請湖南義兵文	嶺湖南 脣齒	6-590
30	1592.11	任啓英	左義兵通文	爲國 募糧	6-592
31	1592.11	尙義大將	通文	忠義 合勢	6-593
32	1592.11	吳澐	通文	募糧 義理	6-606
33	1592.12	鄭經世	檄告于左道列邑守宰及士林諸君子	痛憤 募糧	6-611
34	1592.12	金涌	募兵通文	義理 募兵 募糧	6-613
35	1593.5	湖南士子	通文	天兵 供饋	6-635
36	1593.9	金福億	通文		7-22
37	1593.윤11	金德齡	敬告于道內列邑諸君子		7-32
38	1593.12	湖南士子	通文		7-35
39	1593.12	奇孝曾	通文		7-36
40	1594.1	金德齡	移檄嶺南文		7-48
41	1598.6	丁炤	通文		7-201

위의 표에서 보듯이 『난중잡록』에 수록된 임란시기 의병의 격문이나 통문은 총 41편이다. 그 중 임진년인 1592년 한 해 동안에 작성된 격문류가 34편으로 전체의 약 83%에 달할 정도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듬해인 1593년의 것이 5편, 1594년 1편, 1598년 1편의 분포를 보

이고 있다. 이는 임란 초기에 의병이 활발하게 일어났음이 격문의 빈도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하겠다. 또한 의병의 긍정적 활동 기간이 임란 발발 약 1년 정도에 그치며, 그 이후 의병이 점차 관군화되면서 해소되었다는 사실과도 합치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41편의 격문과 통문에 나타난 핵심어를 분석해보면 창의의 동기를 짐작할 수 있다. 창의의 동기를 통해 창의에 영향을 미친 정신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선비 정신과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위 표에 제시된 격문과 통문의 핵심어 중에서 동기와 관련되어 주목되는 것은 大義(義理), 忠誠(忠孝, 忠義), 爲國(爲民), 責任, 復讎 등이다. 위의 다섯 가지 정신은 서로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이 아니라 상호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격문에 위 다섯 가지 중 몇 가지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아래에서는 각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선비의 대의이다. 격문이나 통문에서 창의의 당위성을 강조할 때 흔히 운위되는 단어는 대의 또는 의리였다. 의는 의로움이요 옳은 것이며, 나에게도 옳고 남에게도 옳은 것을 가리킨다. 곧 선비가 지향하고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이다. 관군에 속하지 않아 참전이 의무가 아닌 사람이 일어서는 것이 의로운 행위로 간주되었다. 의로움이 외적의 침입에 대응하여 의병 창의를 가능케 한 정신이었던 것이다.

의는 현실에서는 책임의식으로 발현되며,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 경상도 초유사 김성일은 군신간의 대의를 “하늘의 법도요 땅의 도리니 이른바 백성의 떳떳한 良心”⁹⁾이라고 규정하면서 의병의 궤

9) 『난중잡록』1, 1592년 5월, 招諭一道士民文(『국역 대동야승』6, 361쪽).

기를 촉구해마지 않았다. 대의를 군신간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기본적인 윤리 규범으로 간주한 것이었다. 사실 군주의 신하에 대한 의리를 강조한 오류의 하나인 ‘君臣有義’도 점차 군주의 절대권이 강해지면서 신하의 군주에 대한 의리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조선조 때는 당연히 그러한 해석이 지배하고 있던 시기였던 것이다.

창의와 관련하여 대의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래와 같은 고경명의 일련의 격문이다.

더구나 근년 이래로 儒道가 크게 흥기하여 사람마다 뜻을 가다듬어 학문에 힘쓰고 있으니 임금을 섬기는 大義를 어느 누가 익히지 않았으리오. …… 지금은 적의 형세가 크게 꺾이고 왕의 靈威가 날로 신장되어 가니 이야말로 대장부가 공명을 세울 기회요, 君父에게 보답할 날이다.¹⁰⁾

오직 신하로서의 충의에 찬 마음이 다함께 지극한 본성에서 우러난 것으로 존망의 위기에 임했을 때에 감히 미미한 몸을 아끼겠는가? …… 의리는 의당 나라 위해 죽는 것이니, 혹은 무기를 들고, 혹은 군량을 도우며, 혹은 말에 올라 남 먼저 전장으로 달리고, 혹은 분연히 쟁기를 던지고 발두령에서 일어나되, 제 힘이 미치는 데까지 오직 義로 돌아가라.¹¹⁾

그는 유학이 조선조에 크게 흥기함으로 인해 선비들이 모두 대의를 평소에 익힌 사실을 전제로 하여 모두 대의를 쫓아 창의할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선비들로 하여금 오직 의리로 돌아갈 것을 촉구해마지 않았

10) 『국역 제봉전서』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檄道內書, 31쪽. 조경남, 『난중잡록』 1, 1592년 6월, 檄道內書(『국역 대동야승』6, 392쪽). 『선조수정실록』26, 25년 6월 1일 기축.

11) 『난중잡록』1, 1592년 6월, 檄諸道書(『국역 대동야승』6, 399쪽).

던 것이다. 창의를 선비가 지향한 의리정신의 발로였다.

둘째, 군주에 대한 충성이다. 군주에 대한 신하의 의리가 바로 충성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충성이 창위의 논리로 많이 거론되었다. 군주에 대한 충성은 勤王으로도 표현되었다. ‘충’과 ‘의’를 합쳐 ‘忠義’, ‘忠義之士’라는 말들이 흔히 운위되었으며, ‘충’과 ‘효’를 합쳐 ‘충효’도 함께 많이 거론되었다. 전제군주 국가에서 군주가 바로 나라를 의미하였기 때문에 군주에 대한 충성은 곧 나라에 대한 충성을 가리켰다.

경상도 예안의 이숙량은 고을의 선비들에게 포고한 격문에서 평소에 배우고 강론한 것이 바로 “신하로서 충성하다가 죽으며, 자식으로서 효도하다가 죽는 것”에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창의를 독려하였다.¹²⁾ 전라도 고부의 유생들도 “마땅히 신하된 자가 충성을 다하여 목숨을 바칠 날”임을 강조하고 환기시키면서 충군·애국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창의를 부르짖었다.¹³⁾

평안도 강동현에서 유배 중이었던 조호익이 사면과 동시에 창의한 사실을 높이 평가하여 동문인 류성룡은 다음과 같이 그의 충성심을 특기하였다.

조호익은 書生이어서 무예에 능통하지 않았지만, 오직 충의로써 병사들의 마음을 격려하였다. 동짓날에는 부하들을 데리고 임금 계신 곳을 향하여 네 번 절하고 밤새 통곡하였으니, 모든 병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눈물 흘렸다.¹⁴⁾

12) 이숙량, 『국역 매암문집』2, 布告一鄉士民文(7월 21일), 매암선생문집편찬위원회, 1996, 128쪽.

13) 오희문, 『국역 채미록』1, 古阜儒生檄文(해주오씨추탄공과중중, 1990, 24쪽).

14) 류성룡 저, 김시덕 역해, 『교감·해설 정비록』, 아카넷, 2013, 322쪽.

셋째, 국가와 백성을 위한 창의였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려는 선비들의 의지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다. 선비의 창의는 강한 사족 지배체제의 기반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는데, 이는 평소 국가와 백성들이 선비를 인정하고 길렀기 때문이다.

경상도 초유사 김성일은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온 뒤로 “그 해독이 사방에 두루 퍼지고 유헤이 천리에 낭자하니 백성들이 받는 양화는 어찌 말로 다 하겠는가.”라고 당시의 참상을 지적하면서 선비의 창의를 독려했다.¹⁵⁾ 송제민도 호남지역에서 의병을 모병하면서 쓴 격문에서 조상과 부모·자손 및 이웃과 친구들이 숨쉬고 살던 고장을 지키는 일에 떨쳐 일어날 것을 강조하였다.¹⁶⁾

호서지역의 대표적 의병장인 조헌은 창의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국토수호와 국맥의 전승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군사의 기세는 누차 꺾이어 한탄만 하고 민생이 다시 소생할 길이 끊어졌으니, 만약 그대로 내버려두면 반드시 썩어 문드러지게 되고 말 것이다. 장차 기자의 끼친 풍화로 하여금 길이 야만의 지역이 되게 한단 말이냐?¹⁷⁾

그리고 전라좌도 의병장을 지낸 임계영은 여러 군현에 보낸 격문에서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 창의할 것을 설파하면서 한 지역의 요충지와 한 지역의 생명을 보호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15) 『난중잡록』1, 1592년 5월, 招諭一道士民文(『국역 대동야승』6, 360쪽).

16) 『난중잡록』1, 1592년 7월, 募兵湖南義兵文(『국역 대동야승』6, 493쪽).

17) 『난중잡록』1, 1592년 7월, 起義討倭賊檄(『국역 대동야승』6, 457쪽).

기왕 죽을진대 어찌 나라를 위해 죽지 않겠는가? 하물며 만에 하나라도 중요한 길을 막아 지켜서 적의 세력을 저지시킨다면 사지에서 살아나는 것도 이 기회요, 부끄럼을 씻고 나라를 회복하는 것도 이 때라고 봅니다. …… 굳건히 요충지대를 지키다면 위로 관군의 성원이 될 것이요, 아래로 한 지방의 생명을 안보할 것입니다.¹⁸⁾

의거로 군사를 일으키는 오로지 국가를 위하여 적을 토벌함이다. …… 지금 만약 기회를 잃으면 어찌 회복의 공을 성취하여 남아있는 백성을 구하랴. 이때가 바로 의기 분발한 선비가 몸을 잊고 나라에 보답할 때이다.¹⁹⁾

넷째, 선택받은 지배층으로서 지녀야 하는 책임 의식이다. 선비들은 지배층의 일원으로서 국가가 전도되고 군주가 옥을 보는 위기를 앓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점을 많이 거론하였다. 나라가 망한 데에는 필부라도 책임이 있는 법인데, 하물며 지배층이라면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난에 임한 선비는 어떤 형태로든 그 극복을 위해 돕는 것이 마땅한 책무였던 것이다.

경상도 함안 출신의 문신인 조종도 등은 모병을 위한 통문에서 지배층이자 지식인인 선비들의 분발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였다.

임금의 고통을 급한 일로 여겨서 이적의 화를 물리치는 것은 충의 중에서도 급선무요, 국가의 위기에 처하여 죽고 사는 근심을 잊음은 정절 중에서도 큰 것이다. 만물 중에서 가장 영묘하여 사람이 되고, 다 같은 백성 중에서 뛰어나 선비가 된다. 왜 영묘하다 하는가? 사람은 군신과 부자의 윤리를 알기 때문이다. 왜 뛰어났다고 하는가? 선비는 義와 利의 향배를 분별함

18) 『난중잡록』1, 1592년 7월, 檄列邑諸友文(『국역 대동야승』6, 489쪽)

19) 『난중잡록』1, 1592년 10월, 移本道諸義兵檄(『국역 대동야승』6, 582쪽).

있기 때문이다.²⁰⁾

그는 선택받은 존재인 선비에게 더 무거운 책무가 부여됨을 설파한 것이다. 전라 좌의병장 임계영도 장흥 선비들의 창의를 독려하는 격문에서 “의병을 일으킴이 유생으로부터 주장되었은즉 이름이 사류에 참여된 자는 마땅히 분기하여 사졸의 앞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선비가 모범을 보일 것을 그 책무로 강조하였다.²¹⁾ 이어 그는 의병을 일으키는 것이 공론이어서 선비로서 피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그 공론에 따를 책임이 선비들에게 있음을 강조하면서 동참을 촉구하였다.²²⁾

다섯째, 부모형제를 위한 복수였다. 이는 전쟁이 조금 진전된 이후 나타나는 것이기도 한데, 근본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인 효에 근거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가장 고통을 겪으며 희생될 가능성이 많은 존재는 노약자들이었다. 이에 경상도 초유사 김성일도 창의를 독려하면서 군신의 도리에 이어 두 번째로 거론한 것이 자식된 도리로서의 효에 호소하였다.²³⁾ 전쟁이 진행될수록 왜적에 의해 죽은 부모 형제 가족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그 원수를 갚자는 복수심이 효성에 따라 분출되어 함께 강조되었다. 충에 이어 효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고경명의

20) 『난중잡록』1, 1592년 5월, 募兵通文,(『국역 대동야승』6, 364쪽).

21) 『난중잡록』1, 1592년 8월, 移長興士子檄(『국역 대동야승』6, 511쪽).

22) 『난중잡록』1, 1592년 8월, 移本郡檄, 移本府檄, 移檄列邑(『국역 대동야승』6, 512~513쪽).

23) 『난중잡록』1, 1592년 5월, 招諭一道士民文(『국역 대동야승』6, 361쪽). “부모가 왜적의 칼을 맞고 골육이 서로 보전되지 못하여 개인 가정의 화 역시 참혹할 것이니, 자제 된 자가 머리를 움켜쥐고 쥐같이 달아나거나 하고 만 번이라도 죽을 힘을 내어 부모 보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자식된 도리에는 어찌 되겠는가?”

아들 고종후, 홍언수의 아들 홍계남, 조현의 아들 조완도 등의 경우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격문에서 그 점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강조하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른 이들의 협조와 동참을 호소하였다.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한 복수군을 조직하자는 경기도 조방장 홍계남의 선창에 기꺼이 동참하여 뒤따라 일어난 고종후는 호남 지역에 다음과 같은 격문을 보내었다.

아 홀로 호남사람만이 일을 같이 할 수 있을 뿐 아니니 생각하건대, 서울에서 남방으로 적을 피해 온 사람인들 어찌 부자 형제의 원수가 없겠는가. 비록 적의 칼날에는 요행히 면하였으나 풍상을 겪어 고생으로 죽은 이도 또한 이 적을 잊지 못하리라. 부모의 원수와는 한 하늘 밑에 살지 않으며, 형제의 원수와는 나라를 같이 하지 않으며, 벗의 원수는 칼을 돌리지 않는다는 의리를 거듭 생각하시라.²⁴⁾

이상 창의를 배경이 된 정신으로 크게 다섯 가지의 요소를 격문을 통해 추출하여 살펴보았다. 선비들의 창의를 평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선비정신의 발로였다고 할 수 있다. 선비들의 의병 활동은 선비정신의 현실 세계에서의 구현이자 적용이었던 것이다. 선비들은 창의를 당위성을 강조하고 희생에 가치를 부여하는 격문을 통해 동참을 호소하였다. 이는 위기를 맞은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성을 부여한 행위로서 지도자의 마땅한 역할이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백성들의 힘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선비들이 내세운 창위의 명분이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많은 백성들을 의병 휘하에

24) 『난중잡록』2, 1592년 10월, 通文(『국역 대동야승』6, 585쪽).

모우고 거느리기 위해서는 의병장의 높은 명망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선비의 명망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모범이 되는 평소의 처신에서 비롯되는 만큼 평소 학문을 닦으면서 인격 도야에도 힘쓴 선비라야 가능한 일이었다.

한편 격문에는 나타나지 않는 창의의 동기에도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격문에 차마 나타낼 수 없지만 뚜렷한 동기로 작용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병장들이 쓴 격문이나 통문에는 나타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동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훈에 대한 보상 심리가 그것이다. 선비의 격문에서는 드러내기 어려운 점이지만 의병 참여의 현실적인 동기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조정에서는 적의 수급을 베는 수효에 따른 각종 포상을 내걸고 독려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실제 경상도 초유사 김성일과 같이 관변의 측에 서있던 이는 의리로써 일어날 것을 유지하는 한편으로 상벌에 대한 부분도 아울러 논급한 바 있었다.²⁵⁾

25) 『난중잡록』1, 1592년 6월, 通諭玄風士民文(『국역 대동야승』6, 452~453쪽). “혹시 무식한 서민은 임금 섬기는 의를 모를 수도 있는 즉 그들에게는 오직 상과 벌로 권하고 징계할 수 있으니, 그들은 조정에서 내린 방목을 보지 못했는가? 공천이나 사천을 막론하고 적의 목 하나나 들을 베어 바친 자에겐 6품의 관직을 주고 목 셋을 바친 자에겐 통정을 주고, 왜의 장수를 베어 바친 자에겐 가선을 주어 공을 기록한다고 하였다.”

Ⅲ. 선비들의 의병 활동과 그 의미

육지의 관군은 대규모 일본군의 급작스런 침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졌다. 침략로에 위치한 지역의 경우 행정체계와 군사체계가 동시에 붕괴되면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 의병은 관군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분연히 일어났다. 전직관료와 유생 등이 선비정신에 입각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의병은 관군에 편입되지 않은 자들이거나 관군에 속하였다가 흩어진 이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임란 초기 의병 활동은 꺼져가던 국운에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행위였다. 의병의 중요성을 인식한 조선 정부는 의병 창의를 독려하여 총력전을 펼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왜란 극복의 주요한 원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영남을 비롯한 호남·호서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나서 왜적에 맞서 싸우거나 왕실을 호위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창의한 사실들이 말로 전해지면서 비로소 백성들도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국가와 지배층을 믿고 따를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야말로 무너져가는 나라를 지탱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었다. 이를 선비들이 행동으로 이끌어 낸 것이다.

당시 시무책을 올린 우참찬 성혼은 당시 의병의 공로를 다음과 같이 정당하게 지적한 바 있었다.

6월 이후에 이르러 남방에서 의병이 처음으로 일어나 군사를 이끌고 勤王하였으므로, 도로에 말이 전해지고 그 聲勢가 크게 확장되었는데, 그런 뒤에야 吏民들이 바야흐로 국가를 향하는 마음이 있게 되었으며, 수령도 그 호령이 조금 행해져 군사를 징발하면 주민들도 점점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

한 때를 당하여 조금이라도 백성의 뜻을 돌리어 우리 국가가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한 것은 남방 의병의 공로입니다.²⁶⁾

『선조실록』에서도 여러 지역의 명문거족에 속한 선비들이 창의함으로 써 원근의 백성들이 격동되어 의병진에 모여들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인심이 더 이상 이반되지 않고 하나로 결집될 수 있었으며, 결국 국가의 명맥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비록 전투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성취한 바가 없었는지 몰라도 국가의 명맥이 의병 덕분에 유지되었다는 점만은 분명히 하고 있다.

諸道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 그러다가 道内の 巨族과 名人이 儒生 등과 함께 조정의 명을 받들어 倡義하여 일어나자 듣는 사람들이 격동하여 원근에서 응모하였다. 크게 성취하지는 못했으나 인심을 얻었으므로 국가의 명맥이 그들 덕분에 유지되었다.²⁷⁾

변란이 생긴 이후로 인심이 흩어졌는데 義士들이 한번 倡義하자 軍民이 항응하여 국가가 오늘날까지 있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의병들의 힘이었습니다.²⁸⁾

선비들의 창의는 일본군에게 일방적으로 우세하게 전개되던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조선의 내부로 깊숙하게 침입해 들어온 일본군의 전선은 대단히 길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길어진 전선의 유지 관리로 인해 부담도 대단히 커진 상태였다. 의병은 바로 그 약점을

26) 『선조수정실록』26, 25년 12월 1일 정해, 우참찬 성혼의 시무책.

27) 『선조수정실록』26, 25년 6월 1일 기축.

28) 『선조실록』32, 25년 11월 16일 임신.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 일본군의 후방을 교란하기 시작하였다. 일본군은 보급로를 방어하기 위해 군사력을 분산시켜야 하였으며, 일부 보급로는 포기하여야 하였다. 보급로와 퇴각로가 안전하게 확보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최전선의 일본군들도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다.

의병의 활약으로 체제 정비를 위한 시간을 번 조선은 차츰 육지의 관군을 수습하여 재정비할 수 있었다. 마침내 전열을 가다듬은 관군은 일본군과 정규전으로 맞붙을 수 있는 상태를 회복하게 되었다. 때마침 명의 원군도 도착하였다. 명의 참전은 외면상 조선측의 청원에 의한 구원의 성격을 띤 것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조선의 땅에서 왜를 차단함으로써 명을 지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이었다. 어쨌든 조명연합군은 본격적으로 일본군을 격퇴하기 시작하였다. 평양성을 탈환하고, 서울을 수복하면서 드디어 전세를 뒤집었다. 이때부터는 조선 관군과 명군이 전쟁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고, 전란의 초기와는 달리 관군의 권위가 높아지면서 민심도 차차 안정되었다. 마침내 점령당하였던 대부분의 국토를 회복하고 일본군을 경상도의 동남해안가 지역으로 몰아넣고 묶어두는데 성공하였다. 의병 활동은 전쟁의 흐름을 조선에 유리하게 전환시키는 데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의병은 근본적으로 근왕정신에 입각하여 왜적을 물리치는 것에 그 주된 목적을 두었다. 지역에 따른 목표의 차이는 주변 지역에 당장 격퇴해야 할 일본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것에 불과하였다. 여기에 따라 자신의 지역에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일본군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인지가 결정되었을 따름이다. 단순한 전술상의 차이에 불과하였으며, 그 차이도 단기간에 그쳤다. 고경명도 처음에는 선조가 있는 북쪽을 향해 나아갔으나 결국은 전라도 주변에 나타난 일본군을 맞이하여 전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임란 의병은 창의 목적과 정신이 근본적으로 서로 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단지 서술의 편의상 권역별로 나누어 저명 의병장의 활동과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경상도의 곽재우·김면·정인홍·정세아·김해, 전라도의 고경명·김천일·임계영·최경희, 충청도의 조헌, 경기도의 우성전, 황해도의 이정암, 평안도의 조호익 등이 대표적인 선비 의병장이었다.

먼저 경상도 지역의 경우는 일본군의 침입로상에 위치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군이 주요 지점 곳곳에 留屯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 내의 일본군을 격퇴하는 활동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국왕인 선조도 교서를 내려 영남지역의 군사들에게 내린 지침이기도 하였다.²⁹⁾ 이에 경상도 지역에서는 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향토 지리에 걸맞은 계림라 전술과 전략으로 적에게 타격을 주는 전략으로 임하였다.

郭再祐가 가장 먼저 의령에서 창의하였다. 4월 22일에 가산을 털어 장정을 모아 창의하였으니, 왜란 발발 8일만의 일이었다. 거주지인 의령과 고향인 현풍, 그리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주로 활약을 하면서 크고 작은 전투에서 왜적을 격퇴하였다. 그 중 가장 큰 공적은 낙동강의 정암진을 지켜 일본군의 전라도 침공을 방어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한 공을 인정받아 유곡찰방, 형조정랑에 이어 10월에는 정 3품 당상관인 절충장군

29) 조경남, 『난중잡록』1, 1592년 8월, 선조의 교서(『국역 대동야승』6, 519쪽). “본도(경상도)에는 留屯한 적이 역시 많고 왕래하는 자도 또한 많아서 길에 잇달았다 하니, 마땅히 서로 요해지를 질러 막아서 노략질하는 적을 나누어 무찌르고 또한 마땅히 길옆에 군사를 매복시켜 좌우로 서로 응하여 혹 맞아서 치고 혹은 뒤뱐아 쳐서 적으로 하여금 마음 놓고 다니지 못하게 하여 마침내 한 놈도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

의 품계를 받아 조방장에 제수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날 즈음에는 경상도 좌방어사를 맡아 관군으로서 화왕산성에 웅거하여 일본군과의 일전을 노렸으나 일본군의 교전 회피로 군사와 물력을 보전할 수 있었다.³⁰⁾

金沔이 이어 창의하였다. 김면은 고령에서 의병을 규합하기 시작하여 5월 11일에 정식으로 기병을 하고 거창으로 옮겨가서 그곳을 중심으로 2,000여명으로 창의하였다. 주위 고을인 안음, 함양, 산음, 단성, 삼가, 의령 등의 유력 사족들에게 통문을 보내어 거병을 독려함으로써 주변 지역을 규합하여 선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점차 규모를 키운 김면군은 5,000명에 이르는 대군을 형성함으로써 경상우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의병집단을 이루었다. 이에 1592년 11월 조정에서는 義兵都大將이라는 칭호를 내림으로써 김면으로 하여금 경상도 의병을 총괄하게 하였다. 조정으로부터 인정을 받음으로써 명분과 권위를 동시에 확보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조정의 일정한 통제하에 놓이게 된 셈이었다. 이어 1593년 1월에는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에 제수됨으로써 관군의 수장으로 위치가 바뀌게 되었다. 김면군의 가장 큰 공적은 일본군의 전라도 침입을 차단하였다는 점이다. 더 큰 활약이 기대되었던 김면은 안타깝게도 1593년 3월에 병사하였다.³¹⁾

합천의 鄭仁弘도 경상우도를 대표하는 의병장이었다. 선조대에 산림으로 징소되어 사헌부 장령으로 재직할 바 있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날 즈음에는 낙향해있던 상태였다. 김면과 함께 거창에 있던 경상도관찰사 김

30) 이장희, 『곽재우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5, 159~181쪽, 204~208쪽.

31) 김강식, 「송암 김면의 의병활동과 역할」, 『남명학연구』2, 1992, 79~101쪽.

수를 찾아가 방어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김수의 소극적인 대응에 실망한 두 사람은 돌아와 창의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정인홍은 5월10일 경에 뜻을 같이하는 주변의 인사들과 제자들을 규합하여 1,000여명으로 창의하였다. 다음 달에는 3,000여명으로 규모가 늘어났다. 합천을 중심으로 하여 고령, 성주 등 낙동강 주변에서 크고 작은 전투를 벌이면서 일본군의 진입을 막거나 격퇴하였다. 그 공을 인정받아 조정으로부터 진주목사, 제용감정, 성주목사 등의 관직에 제수되었다. 일본군이 동남해안쪽으로 밀려나고 소강상태에 접어든 후인 1593년 가을 무렵 수하의 군사를 모두 관군에 배속시키고 의병장에서 물러났다.³²⁾

경상우도 지역을 대표하던 곽재우, 김면, 정인홍의 의병부대는 관군과 대체로 불편한 관계로 말미암아 한 때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특히 곽재우는 관군과 매우 심각한 갈등을 빚었는데, 경상도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경상도 관찰사 김수를 처단하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중재한 것은 慶尙道招諭使로 내려온 김성일이였다.³³⁾ 그는 얼마 뒤 영천 지역의 의병장 정세아·권응수와 경상도병마절도사 박진 사이의 갈등도 조정한 바 있었다.³⁴⁾ 그리고 당해 지역의 관군을 정인홍 의병부대와 김면의 의병부대에 소속시켜 그 절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의 요소를 미연에 차단하기도 하였다. 삼가, 초계, 성주, 고령의 군사를 정인홍의 휘하에 배속시켜 주었으며, 경상도 관찰사 김수 휘하의 김준민을 정인홍에게 보내 전사한 손인갑을 대신하여 군사

32) 고석규, 「내암 정인홍의 의병활동」, 『남명학연구』2, 1992, 42~50쪽.

33) 허선도, 「학봉선생과 임란의병활동」, 『학봉의 학문과 구국활동』, 여강출판사, 1993, 288~291쪽.

34) 우인수, 『임란의병의 힘, 영천 호수 정세아종가』, 예문서원, 2013, 46~47쪽.

를 지휘케 하기도 하였다.³⁵⁾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김성일은 의병과 관군의 역량을 오로지 일본군 격퇴에 집중시킬 수 있었다. 이로써 임란 초기 어수선한 경상도의 국면이 비로소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한도의 인심이 그에게 크게 의지하게 되었다.³⁶⁾

경상좌도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의병 활동이 일어났다. 좌도 지역 퇴계학파를 대표하던 유수한 인물들은 당시 조정에서 관직생활을 하고 있던 인물이 많았다. 류성룡은 정승으로 선조를 호종하면서 전시 국면을 총괄하고 있었고, 앞에서 언급한 김성일은 경상도 초유사에 임명되어 경상우도 지역에서 활약하고 있었으며, 김득은 경상도 安集使에 임명되어 경상좌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예안의 류종개는 조목과 류성룡의 문인으로서 의병 수백 명을 모아 스스로 의병장이 되었다. 그는 문과에 급제한 후 관직 생활을 하다가 부친상을 당하여 처가인 봉화에 내려와 있던 중 임란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마침 태백산을 타고 넘어 들어오던 일본군과 조우하여 격전을 치른 끝에 봉화 소천에서 전사하였다. 그의 의병부대에는 김중청·임흘 등 여러 퇴계학파에 속한 인물들이 함께 하였다.

경상좌도 의병장 柳宗介가 적을 만나 패하여 전사하였다. …… 이로부터 鄉人들이 군사를 꺼려하게 되었는데, 安集使 金功이 金誠一과 서로 호응하여 함께 격문으로 타이르니, 시골에 살고 있는 사대부들이 비로소 곳곳에서 군사를 모으기는 하였으나 모두 군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그쳤다.³⁷⁾

35) 고석규, 앞의 『내암 정인홍의 의병활동』, 43~45쪽.

36) 『선조수정실록』27, 26년 4월 1일 을유, 경상좌도 순찰사 김성일의 줄기.

37) 『선조수정실록』26, 25년 8월 1일 무자.

안동 지역의 여러 선비들이 창의의 논의를 시작한 것은 대개 1592년 6월경이었다. 마침 경상도 안집사로 내려온 김륙의 권유에 힘입어 안동을 위시한 경상도 북부 일대의 선비들은 곳곳에서 자체 격문을 내면서 의병을 규합하기 시작하였다.³⁸⁾ 조금 뒤에 도착한 경상도 초유사인 김성일이 보낸 초유문도 창의에 힘을 보태었다. 먼저 예안에서 김해를 대장으로 하여 300여명이 창의하였다. 김해는 김부의의 아들로서 문과에 급제한 후 한림 벼슬을 역임한 바 있었다. 이 때 예안 지역의 선비들을 망라하여 의병진용을 쥘다.³⁹⁾

8월에 접어들면서 안동 인근의 크고 작은 의병 부대들은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안동 남쪽의 일직에 모여 열읍 의병의 동맹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안동, 예안, 의성, 의흥, 군위 등의 의병들이 모여 김해를 대장으로 추대하고 이정백과 배용길이 각각 좌우부장을 맡았으며 각 군현의 의병장을 임명하였다. 의진의 이름은 ‘安東別邑鄉兵’이라 칭하고 본진을 안동에 두기로 하였다. 뒤에 김면이 경상도 의병을 총괄하는 의병도대장에 임명된 사실을 알고 의병문서를 김면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10월부터는 일본군이 교두보로 확보하여 굳게 지키고 있는 상주 당교를 수차에 걸쳐 공격하면서 전투를 벌였다. 당교 공략은 이듬해 4월까지 이어졌는데, 경상도 전역의 관군과 의병이 합동 작전을 펼친 바 있었다. 김해는 이후 양산을 거쳐 경주에서 이광휘와 합세하여 싸우다가 진중에서 병사하였다.⁴⁰⁾

38) 이 때 김륙은 영주와 안동 주변 고을의 도망가고 없는 수령 대신에 임시 수령을 임명하여 지키게 하였다. 조경남, 『난중잡록』1, 1592년 7월(『국역 대동야승』6, 471쪽).

39)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근시제 김해의 의병활동」, 『군자리, 그 문화사적 성격』, 토우, 2002, 188~190쪽.

40) 노영구, 앞의 「임진왜란 초기 근시제 김해의 의병활동」, 192~206쪽. 최효식, 『임

다음으로 상주는 일본군의 직접적인 침략로이였을 뿐 아니라 일본군이 상주하는 거점 지역이어서 의병 조직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 그러한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상주 지역 선비들의 창의는 경상도초유사 김성일의 격문과 각지 의병의 거병 소식, 기의를 권하는 국왕 선조의 교서 등에 힘입어 계기가 마련되었다. 상주에는 세 부류의 의병 조직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공존하였다. 7월에 이봉을 대장으로 한 창의군이 결성되었고, 8월에는 김홍민을 대장으로 한 충보군이 속리산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그리고 9월에는 김각을 대장으로 하고 정경세와 이준이 참여한 상의군이 소백산맥의 기슭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모두 100여명 정도의 규모 밖에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규모 적에 대해 매복이나 야습에 만족하여야 하였다. 10월에 정기룡이 상주목의 관관으로 임명되면서 관군의 전열이 재정비되기 시작하였고, 11월에는 상주성을 탈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후 상주지역의 의병은 관군과 합동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일이 잦아졌으며, 점차 관군의 지휘를 받는 준관군화하였다.⁴¹⁾

영천의 의병장 정세아는 퇴계 문인 정윤량의 아들이로서 비교적 빠른 시기인 5월경에 영천에서 창의하여 900명에 달하는 의병을 모았다. 처음 영천 주변의 작은 적들을 물리치면서 차츰 명성을 쌓았다. 그러자 그의 의병들을 관군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말미암아 의병과 관군 사이에 여러 가지 마찰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 정세아는 경상도 초유사 김성일에게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초유사의 중재로 관군의 절제를 받지

진왜란기 영남의병연구』, 국학자료원, 2003, 233~255쪽.

41) 정진영, 「입란 전후 상주지방 사족의 동향」, 『민족문화논총』8, 1987, 113~129쪽.

않는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7월에는 관군과 연합하여 영천성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때 공을 세운 인물은 영천 의병장 정세아와 신령 의병장 권응수였으며, 관군으로는 경주관관 박의장, 영천군수 김윤국 등이었다. 영천성 탈환은 일본군 침략로의 한 방면을 봉쇄하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경주에 모인 적을 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한 쾌거였다. 정세아는 이어 관군과 합동으로 펼친 8월의 경주성 탈환전에도 참가하여 분전하였으며, 경주성은 결국 경주관관 박의장에 의해 9월에 탈환되었다. 영천성과 경주성의 수복으로 경상도 동북부 지역이 온전하게 보전될 수 있었다.⁴²⁾

다음으로는 兩湖 지역에서의 대표적인 의병활동이다. 호남지역은 임진왜란 초기 유일하게 왜군의 침입을 받지 않은 곳이었다. 따라서 조선의 공적인 행정체계가 제대로 온전히 작동되고 있던 곳이었다. 그에 따라 4월말 전라도관찰사가 인솔한 8천명의 관군이 근왕을 위해 충청도 공주까지 갔다가 서울이 이미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임의로 군대를 해산시켰으며,⁴³⁾ 5월 하순 하삼도 관찰사가 연합하여 이끈 관군 2만명이 서울을 향해 진격하였다가 용인 근처에서 소수의 일본군에 참패를 당하고 궤산되었다.⁴⁴⁾ 이렇게 호남지역의 관군은 두 차례에 걸쳐 의욕적으로 군사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군에 대한 불신감만 커지고 불안감만 키우는 꼴이 되고 말았다.

42) 우인수, 앞의 『임란의병의 힘, 영천 호수 정세아증가』, 45~61쪽.

43) 『난중잡록』1, 1592년 4월 29일, 5월 4일(『국역 대동야승』6, 348쪽, 358쪽).

44) 『난중잡록』1, 1592년 6월 6일(『국역 대동야승』6, 396쪽).

이에 호남지역의 선비들은 뒤에서 관군을 돕던 데에 머물지 않고 전면에서 나서서 직접 창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인물이 고경명과 김천일이었다. 고경명은 문과에 장원급제한 인재로서 청요직을 두루 거친 후 지방관을 역임하다가 고향에 물러나 있던 터였고, 김천일은 이항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은 뒤 학행으로 천거되어 벼슬에 나아가 여러 지방관을 역임한 바 있었다. 김천일은 나주 중심의 소수의 의병부대를 이끌고 급하게 서울을 향해 경기도 방향으로 진격하였다. 고경명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전라도의 남부지역의 여러 지방에서 의병을 모아 약 6천명에 이르는 병력을 이끌고 북상하기 시작하였다. 호남지역에는 일본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호남지역의 의병들이 서울이나 임금이 있는 곳을 목표로 하여 진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전주를 거쳐 6월말에 충청도 은진까지 진출한 고경명의 의병부대는 충청도 황간에 거점을 두고 있던 일본군이 전라도 경계의 금산을 거쳐 중심인 전주를 침공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우선 전주를 수호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였다. 이에 전라방어사군과 함께 금산에 들어온 일본군을 선제공격하기로 하고, 7월 10일 의병은 금산 읍성의 서문을 맡고 관군은 북문을 맡아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강한 반격에 부딪쳐 고경명을 위시한 의병의 핵심 지도층이 모두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다.⁴⁵⁾

비록 고경명의 의병은 첫 번째 대규모 작전에서 실패하고 말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주를 보호함으로써 호남으로의 일본군 침입을 저지하였다는 의미를 가진 값진 희생이었다. 호남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고경

45) 조원래, 「고경명의 의병운동과 금산성 전투」, 『임진왜란과 호남지방의 의병항쟁』, 아세아문화사, 2001, 172~183쪽.

명의 금산 전투를 위시하여 비슷한 시기에 관군과 의병이 수행한 진안 부근의 웅치 전투, 관군이 수행한 금산 서쪽의 이치 전투 등 세 곳에서의 전투에 힘입은 바가 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고경명과 비슷한 시기에 호서지역에서 의병을 일으킨 대표적인 존재는 조현이었다. 그는 이이와 성혼에게 수학한 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에 나아갔으나, 수차에 걸친 과격한 상소 탓에 관직에서 물러나 있을 때 임란을 맞이하게 되었다. 임란 초부터 의병을 규합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성공하지 못하다가 7월경에 가서 호서 지역에 널리 분포된 문인을 중심으로 창의에 성공하여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당시 충청도 지역은 이미 왜군의 주력부대가 영동, 옥천, 청주를 거쳐 서울 쪽으로 북상한 후였고, 그들이 거쳐 간 거점에는 후발 부대의 병력이 배치되어 주변 지역으로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는 8월에 관군과 의승 영규와 연합하여 청주성을 공격하여 혈전 끝에 수복하였다. 관군과 연합하였다는 점도 특징적이거니와 하나의 거점 성을 공격하여 탈환하였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겠다. 청주성은 호서 지역 방어의 중심지 구실을 하는 곳이며, 동시에 호남으로 통하는 길목에 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어 한양 수복을 위한 북상에 앞서 배후에 해당하는 금산 지역의 일본군 본거지를 소탕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전라도 관찰사 권율이 이끄는 관군과 합동으로 금산을 공격하려는 계획아래 조현은 의병 700명을 이끌고 출진하였으며, 일부 지역의 관군이 함께 하고 있었다. 그러나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권율로부터 작전 연기 통보를 받았을 때는 이미 금산의 적진에 너무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다. 8월 중순 후원군이 없는 외로운 상태의 조현군은 마침내 일본군의 기습을 받기에 이르렀다. 격렬한 전투 끝에 조현을 위시하여

승장 영규 등 700명의 의병이 장렬하게 전사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장렬한 저항과 장렬한 죽음으로 호서와 호남지역이 결과적으로 온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의미가 참으로 크다고 하겠다.⁴⁶⁾

고경명의 전사후 호남지역의 의병을 이끈 이는 임계영과 최경회 그리고 고종후였다. 임계영은 퇴계학맥을 이어받은 박광전의 영향을 받은 동인 계열 사림들의 활동지인 보성과 장흥을 중심으로 하여 전라좌의병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최경회는 고경명 휘하의 잔여 병력을 수습하고 광주, 화순, 능주를 중심으로 전라우의병을 결성하였다. 전라좌우 의병은 결성 직후 각각 남원으로 이동하여 합세한 후 장수를 거점으로 하여 금산의 일본군의 동향에 대응하여 작전을 전개하였다. 9월 이후 전황이 바뀌면서 금산의 일본군은 퇴각하여 영남지역으로 남하하였다. 영남 지역 곳곳에서 일본군과 대치하면서 전투를 벌이던 경상우순찰사 김성일과 의병장 김면, 정인홍 등의 지원 요청을 받은 임계영과 최경회는 각각 전라좌우 의병을 이끌고 경상도 지역으로 들어가 영남 지역의 의병장들과 합세하여 함양, 단성, 개령, 성주, 거창 등 곳곳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활약하였다. 1593년 6월 제 2차 진주성 전투를 맞이하여서는 마침 경상우병사에 임명된 최경회가 이끄는 전라우의병 주력과 전라좌의병의 일부가 진주성에 들어가 항전을 하다가 성의 함락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였다. 이로써 전라좌우 의병의 세력은 현격히 약화되기에 이르렀다.⁴⁷⁾

한편 고종후는 부친의 사후 복수 의병을 결성하였다. 순절한 의병장

46) 이석린, 『임란의병장 조헌연구』, 신구문화사, 1993, 144~161쪽.

47) 하태규, 「고경명 순절후 호남지방 임란 의병운동의 추이」, 『고경명의 의병운동』, 국립진주박물관, 2008, 168~178쪽.

홍언수의 아들인 홍계남과 조현의 아들인 조완 등과 함께 서로 부친의 원수를 갚기를 약속하고 복수 의병을 창의하였던 것이다. 고종후는 1천여 명의 의병부대를 이끌고 일본군을 찾아 영남지역으로 이동하여 활약하다가 역시 제 2차 진주성 전투에 참가하여 항전하다가 순절하였다.⁴⁸⁾

호남 의병의 대미를 장식한 인물은 김덕령이었다. 그는 1593년 12월에 광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미 이즈음에는 관군이 전열을 재정비하였고, 명의 구원군이 도달하였으며,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군량의 확보에 어려움이 극심하던 때였다. 이에 따라 의병의 존립 자체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심지어 때도독으로 변하는 일조차 있었기 때문에 의병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던 시기였다. 김덕령은 소강상태에 접어든 전황 탓에 특별한 전공을 올리지는 못하였으나, 조정으로부터 忠勇將에 임명되면서 전국의 의병을 총괄하는 지위에 올랐다. 의병을 관군화하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때마침 일어난 이몽학의 난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국문을 받던 중 장살되었다.⁴⁹⁾ 이후 의병은 다시 일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다음은 경기·황해·평안도 지역의 의병활동이다. 경기도에서 활약한 의병으로는 우성전이 대표적이다. 우성전은 젊은 시절 안동판관이던 아버지를 따라 안동에 머물 때 이황에게 수학하여 문인이 되었다.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하다가 일시 실각하여 고향인 경기도 수원에 머물고 있던 중 임란을 맞이하였다. 곧바로 수원을 중심으로 경기지역에서 수천명의 의병을 모집하여 대규모 의병부대인 秋義軍을 결성하였다.⁵⁰⁾ 추의군은 경기도

48) 하태규, 위의 논문, 178~184쪽.

49) 『선조실록』78, 29년 8월 23일 무오.

50) 『선조수정실록』26, 25년 9월 1일 정사.

지역의 대표적인 의병부대로서 군세와 활동도 매우 출중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천일이 이끄는 의병부대와 함께 연합작전을 펴면서 강화도에 들어가 도처에서 활약하며 크게 전공을 세웠다. 권율의 관군과 연합하여 서울 수복작전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황해도지역으로 진격하여 큰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퇴각하는 일본군을 추격하여 멀리 경상도 의령까지 내려가는 적극성을 보였으나 돌아오던 중 과로로 병을 얻어 진중에서 세상을 떠났다.⁵¹⁾

경기도에서 활약한 인물로 김천일도 빼놓을 수 없다. 김천일은 고경명과 같은 시기에 나주에서 거병한 후 300명의 의병을 이끌고 바로 서울을 향해 북상하였다. 호서지역을 거칠 즈음에는 패잔 관군의 합류로 천여명에 이를 정도로 군세를 불렀다. 수령을 역임한 바 있었던 수원에 이르러서는 더욱 군세를 보강하여 마침내 독성산성을 거점으로 본격적인 군사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7월 하순에는 전라병사 최원과 합군하여 본거지를 강화로 이동하였다. 조정에서는 倡義使라는 칭호를 내려 격려하였다.⁵²⁾ 이후 강화를 중심으로 하여 서울의 서쪽 한강변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눈에 띄는 큰 전공은 비록 세우지 못하였지만 장기간 강화에 주둔하면서 그 지역을 보존하였을 뿐 아니라 서해안 지역의 상하를 소통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듬해 조명연합군이 평양에 이어 서울탈환 작전을 펼칠 때도 전공을 세웠으며, 특히 행주산성 전투가 벌어질 때는 외곽에서 성원함으로써 대첩의 일익을 담당하였다.⁵³⁾

51) 정혜은, 「임진왜란기 경기 의병의 활동 양상과 특징」, 『사학연구』105, 2012, 168~169쪽.

52) 『선조실록』28, 25년 7월 20일 정축.

53) 조원래, 『임란의병장 김천일연구』, 학문사, 1982, 45~57쪽.

그 후 김천일은 300여명의 의병을 이끌고 도망하는 일본군을 추격하여 경상도까지 내려왔다. 이 때 일본군은 경상도의 동남 해안지역에 왜성을 축조하여 거점으로 삼아 버티는 한편 진주성을 공략하여 전일의 패배를 설욕코자 하였기 때문에 진주성이 매우 위급한 상태였다. 이에 김천일은 진주성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아 수적 열세를 돌보지 않고 여러 관군 및 의병들과 함께 수성전에 임하였다. 그리고 격전 끝에 성의 함락과 함께 장렬하게 순절하였다.⁵⁴⁾

황해도에서 활약한 대표적인 의병은 이정암이었다. 이정암은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근시직과 지방 수령을 역임한 바 있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날 당시에 이조참의로 있었는데, 피난을 가는 선조를 뒤늦게 扈從했으나 이미 체직된 뒤였다. 아우인 개성유수 이정형과 함께 개성을 수비하려 했으나 임진강의 방어선이 무너짐으로써 무위에 그쳤다. 그 뒤 황해도로 들어가 招討使가 되어 의병을 모집해 연안성을 지켰다. 일본군 6천의 공격을 받았으나 주야 4일간에 치열한 공방전 끝에 수성에 성공하였다. 그 공으로 황해도관찰사가 되었다. 그 뒤 여러 관직을 역임하다가 정유재란 때는 海西招討使에 임명되어 해주의 수양산성을 지켰다.⁵⁵⁾

평안도에서 의병을 일으킨 조호익은 이황의 뛰어난 문인 중의 한 명이었다. 창원에 거주하던 젊은 시절 관명을 어긴 토호로 간주되어 평안도 강동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다. 18년간에 걸친 유배기간 중에도 학문에 정진하면서 유풍을 진작하고 문인들을 길러내는 데 힘쓰는 등 선비정

54) 조원래, 위의 책, 74~83쪽.

55) 이장희, 「임란 해서 의병에 대한 일고찰 - 연안대첩을 중심으로 -」, 『사총』14, 1969, 8~13쪽.

신에 투철하였다. 평안도로 피난을 온 선조로부터 사면을 받은 후 그곳에서 양성한 문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평안도 지역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점을 국난 극복에 활용할 것을 건의한 동문 류성룡의 도움이 컸다. 그는 문인들과 함께 군사를 모아 평안도 지역에서 여러 차례 공을 세웠으며, 함경도, 경기도, 경상도에까지 넘나들면서 활약하였다.⁵⁶⁾

이상과 같이 임진왜란이라는 미증유의 국난을 당하여 전국의 선비들은 나라를 지키려는 대열에 앞장서 나섰다. 관직을 가진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향촌에 머물던 자는 의병이 되어 펼쳐 일어났다. 혹 자산을 털어 군량으로 내놓기도 하였다. 이들 선비들의 충의 정신은 선비정신의 모범 사례로 후세에 전승되었다.

전세가 안정된 이후에는 점차 의병을 통제하여 관군의 지휘체계 안으로 묶으려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처음부터도 의병에 대해 관군측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고, 그로 인해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당시 의병을 일으킨 선비들도 자신의 부대를 적극적으로 관군화 하지는 않았다. 관의 보증은 필요로 했으며, 관군화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국가적 통제는 최소화하면서 부대의 자율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국가에서는 무리를 헤서라도 의병을 관군화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자율권을 주어 독자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 선택하여야 하였지만 불행하게도 당시 국가에는 선택권이 없었다.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심정에서 관군

56) 이장희, 「지산 조호익과 임진왜란 - 의병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의 철학』26, 1998, 74~77쪽.

화를 고집하기 보다는 의병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던 시기였다.

의병이 온전하게 긍정적인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진 시기는 대개 임란 초기 1년이 채 되지 못하였다. 그 후 의병의 한계를 여러 측면에서 지적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 그 즈음 일이 백명에 그치는 고만고만한 의병진이 무려 일백여개에 달하였지만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주현의 관곡을 먹으면서도 진퇴는 마음대로 행하여 전혀 군대로서의 효율성이 떨어졌던 것이다.⁵⁷⁾

군사 문제를 총괄하는 비변사에서는 의병의 행태와 존재 자체에 대해 문제점을 연이어 공식적으로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 뜻이 있는 자들이 소매를 떨치고 의에 분발, 의병을 규합하여 스스로 한 부대를 만들고서는 의를 명분으로 내걸고 諸道에서 창도한 까닭에 조정에서는 그들을 가상하게 여기고 모든 논상에서 다른 군인들에 비해 특별히 우대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름을 軍簿에 두고 있으면서도 난을 피해 도망하여 흩어져 간 자들까지 각기 때를 지어 官家에 매이기를 기피하면서 이로우면 싸우고 강적을 만나면 흩어지는데, 이기면 높은 상을 받고 패하여도 죄를 받지 않습니다.⁵⁸⁾

비변사가 아뢰기를, 官軍과 義兵은 각기 그 利害가 있습니다. …… 그 가운데 더러는 이름이 官籍에 있는 자가 각자 숨었다가 오래 되면 죄를 입을까 두려워 무리를 모아 의병을 사칭하고 官家를 위엄으로 제압하고 富民을 겁박합니다. 그러다가 大敵을 보면 새처럼 흩어지고 하찮은 것을 만나면 저격해서, 패해도 죄를 입지 않고 이기면 큰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 의병을 관

57) 『선조수정실록』26, 25년 11월 1일 정사.

58) 『선조수정실록』30, 25년 9월 21일 무인.

군에 비하면 해가 될지언정 도움이 없으니 피차의 이해를 따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⁵⁹⁾

비변사에서 지적한 의병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군적에 올라있어 마땅히 관군에 속하여야 할 사람이 관군에 메이기를 기피하는 수단으로 의병을 활용한다는 점, 둘째 이롭거나 하찮은 적을 만나면 싸우고 강한 대적을 만나면 흩어지는 등 진퇴를 임의로 한다는 점, 셋째 이기면 상을 받고 패하여도 죄를 받지 않는다는 점, 넷째 의병을 사칭하여 관을 압박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다.

이쯤 되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비록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더라도 의병의 존재 자체에 대해 재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어떤 형태로든 의병을 통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드디어 선조 27년 4월 모든 의병을 혁파하는 조처가 공식화되기에 이르렀다.

諸道の 의병을 혁파하고 忠勇將 金德齡에게 소속시키도록 명하였다. 김덕령은 진주에 머물러 있었는데, 군량이 떨어지고 무리가 흩어졌으므로 점점 軍容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⁶⁰⁾

의병은 준관군화의 단계를 거쳐 점차 관군으로 흡수되면서 해체되어 갔다. 사실 국가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한 의병은 일시적이고도 한시적인 존재이어야 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59) 『선조실록』32, 25년 11월 1일 정사.

60) 『선조수정실록』28, 27년 4월 1일 기유.

IV. 맺음말

선비들의 임란 창 의 격문이나 통문의 분석을 통해 창 의 정신을 추출하고, 그를 선비정신과 연결 지어 파악하였다. 그리고 선비정신에 입각한 그들의 의병 활동상을 살피기 위해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 활동 상황을 시야에 넣고 조망하면서 의미를 부여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난중잡록』에 실린 총 41편에 달하는 격문과 통문이었다. 그 중 임진년인 1592년 한 해 동안에 작성된 것이 34편으로 전체의 약 83%에 달할 정도로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의병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 때가 역시 임란 초기였음을 확인케 해준다. 격문과 통문에 나타난 핵심어의 분석을 통해 창 의의 동기를 짐작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창 의에 영향을 미친 선비들의 정신을 추출할 수 있었다.

추출된 선비 정신은 大義, 忠誠, 爲國, 責任, 復讐 등 다섯 가지였다. 이 다섯 가지 정신은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이 아니라 상호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첫째, 선비의 대의는 격문에서 창 의의 당위성을 강조할 때 흔히 운위되는 것이었다. 의는 의로움이요 옳은 것으로서 선비가 지향하고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였다. 둘째, 충성은 군주에 대한 신하의 의리가 표출된 것이기 때문에 ‘충’과 ‘의’를 합쳐 ‘忠義’로도 많이 거론되었다. 셋째, 위국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고 그 극복에 앞장서려는 선비들의 의지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넷째, 책임은 한 나라의 지배층으로서 가지는 책임감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다섯째, 부모형제에 대한 복수심으로서 자식의 효성이라는 기

본적인 도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선비들의 창의를 평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선비정신의 발로였다. 선비들의 의병 활동은 선비정신의 현실 세계에서의 구현이자 적용이었던 것이다. 이는 위기를 맞은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성을 부여한 행위로서 지도자의 마땅한 역할이었다. 창의를 명분이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많은 백성들을 의병 휘하에 모우고 거느리기 위해서는 높은 명망이 요구되었는데, 이는 평소 학문을 닦으면서 인격 도야에도 힘쓴 선비이기 에 가능한 일이었다.

임란 초기 선비들의 의병 활동은 꺼져가던 국운에 희망의 불씨를 살 리는 행위였다. 의병의 중요성을 인식한 조선 정부도 의병 창의를 독려하 여 총력전을 펼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지탱시킬 수 있는 힘인 희망을 선비들이 행동으로 이끌어 낸 것이다. 경상도의 박재우·김면·정인홍·정세아·김해, 전라도의 고경명·김천일·임계영·최경희, 충청도의 조현, 경기도의 우성전, 황해도의 이정암, 평안 도의 조호익 등이 대표적인 선비 의병장이었다.

이들의 활동은 백성들의 인심이 더 이상 이반되지 않고 하나로 결집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본군에게 일방적으로 우세하게 전개되던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의병의 활약으로 체제 정비를 위한 시 간을 번 조선은 차츰 육지의 관군을 수습하여 재정비할 수 있었던 것이 다. 비록 의병의 긍정적 활동이 단기간에 그쳤고 전투적인 측면에서는 크 게 성취한 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명맥이 의병 덕분에 유지될 수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난 극복을 위해 창의 대열에 참여한 선비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 여해야 마땅할 것이다. 죽은 이의 충렬을 위로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용

사를 격려하는 것은 국가라면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세월이 흐르면서 선비들의 창의 사실과 선비정신은 그 의미가 증폭되어 갔다. 선비들의 창의는 군주에 대한 충성과 의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국가는 선비들의 충성심을 한층 고양시킬 수 있었고, 사족들은 그에 기대어 지배층으로서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지배력을 유지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임진의병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가치』, 선인, 2009.
- 김강식, 『임진왜란과 경상우도의 의병활동』, 해안, 2001.
- 우인수, 『임란의병의 힘, 영천 호수 정세아종가』, 예문서원, 2013.
- 이석린, 『임란의병장 조현연구』, 신구문화사, 1993.
- 이장희, 『곽재우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5.
- 이장희, 『임진왜란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7.
- 임진관정신문화선양회, 『임진의병사의 재조명』, 2012.
- 임진왜란사연구회, 『임진왜란과 전라좌의병』, 보고서, 2011.
- 정두희 외,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 조원래, 『임란의병장 김천일연구』, 학문사, 1982.
- 조원래, 『임진왜란과 호남지방의 의병항쟁』, 아세아문화사, 2001.
- 조원래, 『임진왜란 연구의 새로운 관점』, 아세아문화사, 2011.
- 최영희, 『임진왜란중의 사회동태』, 한국연구원, 1975.
- 최효식, 『임진왜란기 영남의병연구』, 국학자료원, 2003.

- 학봉선생기념사업회, 『학봉의 학문과 구국활동』, 여강출판사, 1993.
-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편,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 계승범, 「임진의병의 연구 동향과 군사사적 의의」, 『임진의병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가치』, 선인, 2009, 79~109.
- 고석규, 「내암 정인홍의 의병활동」, 『남명학연구』2, 1992, 39~65쪽.
- 김강식, 「송암 김면의 의병활동과 역할」, 『남명학연구』2, 1992, 67~103쪽.
- 김영숙, 「영남의병 관련 임란 격문의 실상과 의의」, 『동방한문학』18, 2000, 149~170쪽.
- 김정미, 「조선조 격문 연구 - 임란기의 격문을 중심으로 -」,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1.
-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경상우도 의병의 성립과 활동 영역」, 『역사와 현실』64, 2007, 33~64쪽.
- 노영구, 「임진왜란 의병에 대한 이해의 과정과 새로운 이해의 방향」, 『한일군사문화연구』13, 2012, 175~202쪽.
-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근시재 김해의 의병활동」, 『군자리, 그 문화사적 성격』, 토우, 2002, 173~208쪽.
- 박재광, 「임진왜란 연구의 현황과 과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23~99쪽.
- 박정민, 「임란기 격문 연구」,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10.
- 이 옥, 「임진왜란기의 경상도 의병 양상」, 『임진전쟁, 그리고 420년의 기억』, 임진관정신문화선양회, 2012, 203~217쪽.
- 이장희, 「임란 해서의병에 대한 일고찰 - 연안대첩을 중심으로-」, 『사충』14, 1969, 5~20쪽.
- 이장희, 「지산 조호익과 임진왜란」, 『한국의 철학』26, 1998, 67~81쪽.
- 정진영, 「임란전후 상주지방 사족의 동향」, 『민족문화논총』8, 1987, 103~140쪽.
- 정해은, 「임진왜란 의병 연구의 성과와 전망」, 『임진의병사의 재조명』, 임진관정신문화선양회, 2012, 5~34쪽.

- 정해은, 「임진왜란기 경기 의병의 활동 양상과 특징」, 『사학연구』105, 2012, 149~185쪽.
- 조원래, 「임란초기 전라좌의병과 임계영의 의병활동」, 『조선시대사학보』57, 2011, 73~112쪽.
- 조원래, 「임진왜란사 연구의 추이와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2000, 123~149쪽.
- 하영휘, 「화왕산성의 기억 - 신화가 된 의병사의 재조명」,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113~143쪽.
- 하태규, 「고경명 순절후 호남지방 임란 의병운동의 추이」, 『고경명의 의병운동』, 국립진주박물관, 2008, 161~190쪽.

Abstract

Seonbi's Spirit behind Raising Militia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and Militia Activities

Woo, In-Soo

This study identified the spirit behind raising militias by analyzing the appeals and circular letters *seonbi*, or virtuous Confucian scholars of the Joseon Dynasty, wrote to raise militia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and regarded in them the spirits of *seonbi*. Furthermore, the study examined *seonbi's* militia activities based on the spirits of *seonbi* and tried to attach meaning to the activities.

The materials used for the analysis here included a total of 41 written appeals and circular letters carried in *Nanjung Jabrok*. Out of the 41 works, 34, or about 83 percent of the entire works, were created in the year 1592 alone. This confirms that in the early days of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militias were actively raised, performing positive func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key words in the written appeals and circular letters, the motive for raising militias could be guessed, and, based on the motive, the spirits of *seonbi*, which affected the raising of militias could be identified.

The identified spirits of *seonbi* consisted of great cause, loyalty, serving one's country, responsibility and revenge. These five spirits were not different but correlated. *Seonbi's* raising militias was a manifestation of their spirits. That is, their militia activities were the realization and application of their spirits in reality. The militia activities, which showed a right direction for the community to follow, were what leaders were required to perform. Although the cause of raising militias was reasonable, one was required to have a good reputation to raise and lead militias composed of ordinary people. *Seonbi* had

such reputation as they always tried to lead a studious and virtuous life.

Seonbi's militia activities in the early days of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gave a glimmer of hope to the nation going into decline. Being aware of the importance of militias, the Joseon government encouraged the raising of militias to wage all out war against Japanese forces and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That is, *seonbi's* militia activities became a hope that could save the falling nation. Their militia activities served as momentum uniting all the people who were estranged from the government. In addition, they reversed the flow of the war, which was developing favorably for Japan. Thanks to militia activities, the Joseon government was able to have time to improve its military system and collect and rearrange government troops on land. Although militia activities had a positive effect only for a short period and did not achieve much in terms of military aspects, it is certain that they played a crucial role for the survival of the nation.

Key Word

Seonbi, the spirit of *seonbi*, militia, militia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written appeal, spirit behind raising militia

▪ 논문투고일 : 2015.1.5 심사완료일 : 2015.2.14 게재결정일 : 2015.2.14